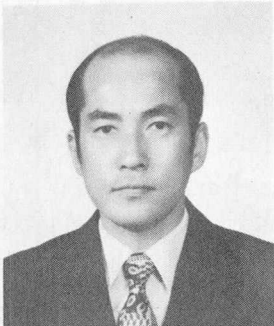


종돈의 자가생산은 합리적인가?



윤희진
(대월종돈장 대표)

지 금은 흔치 않은 일이지만 예전에 닭 키우는 집에서는 알을 곱게 모아 두었다가 암탉에게 안겨서 병아리를 까는 것이 보통이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종계장과 부화장의 기능을 함께 갖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양계업이 발전하면서 곧 종계·부화·채란업 등으로 전문화·

분업화되었고 또 서로 깊은 보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산업분야의 발전 단계라고도 말할 수 있으며 우리의 양돈 역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종돈장은 아직 거래량도 그리 많지 못하고 전문종돈장이 몇군데 안되며 거래방법 또한 개선할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종돈값이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하며 몇 백 두 규모의 비육돈 생산농가에서도 순종사육을 많이 하고 있다. 장차 F₁(우)이나 종모돈을 직접 생산하면 후보돈 보충계획을 세우기도 쉬우나 위생적으로 그것이 꼭 합리적인가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돼지의 경제형질 가운데서 비육이나 도체능력은 지금 능력검정소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당대 산육능력검정을 통하여 개선하고 번식능력의 향상은 부득이 잡종강세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순종사육은 그만큼 성적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순종과 교잡종의 관계를 모든 두당 연간 출하두수로 알기 쉽게 나타낸 자료가 여기에 있다. (Pig Improvement Co, Supplement April 1985) 즉 랜드레이스나 대요크샤 순종의 경우를 100으로 했을때 햄프셔같은 부계는 88, F₁을 만들었을때 106, 삼원교배를 시키

표. 순종과 교잡종의 모든 두당 연간 출하두수 비교

순종 A와B (예를들면 Y나L의 종은 계통)	AA 혹은 BB	100
순종C (부계, H나 Pietrain)	CC	88
순종 암돼지의 교잡종 생산(F ₁)	AB	106
F ₁ 암돼지에 퇴교배	(AB)A 혹은 (AB)B	115
삼원교배	(AB)C	118

면 118이 된다. 순중번식을 시키려면 비육돈 생산에 비해 18%의 출하두수 감소를 예상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 론 이외에도 종돈사육에 따른 여러가지 관리노력이 더 필요하고 순중, F₁, 삼원교잡종이 한꺼번에 출하됨으로써 균일성(均一性) 면에서 상품가치를 떨어뜨리게 된다.

종돈과 비육돈의 생산원가를 정확히 비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는 하나, 이 두가지를 구분해서 사육하고 있는 국내 어느 농장의 예를 들어본다.

이 농장의 관리수준은 매우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종돈장의 산자수가 0.92두(9.2%) 적고 선발후 남은 돼지의 출하일령이 31일 늦었으며 판매단가도 비육돈에 비하여 6%정도 낮았다. 인건비는 72%가 더 들었다.

위의 것을 종합한 생산원가는 비육돈이 kg당 1,164원, 종돈이 1,430원으로 22.8%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관리비·영업외비용 등은 별도)

또 이 자료를 근거로 종돈의 수익성을 검토해보자. 비육돈 가격을 kg당 1,600원으로 하고 종돈생산량의 20%를 90kg 기준 30만원에 팔고 나머지 80% 돼지는 kg당 1,504원(비육돈1,600원보다 6%낮게 받기 때문에)에 팔았다면 두당 이익은 양쪽이 같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돼지 값이 kg당 1,600원선 아래거나 종돈을 20%이상 판매(혹은 선발) 할 수 있을때는 종돈생산이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종돈의 선발도 대개 25%수준을 넘어서면 좋은 돼지를 고르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단위농장에서 자체 조달을 하기 위한 종돈사육이나 종돈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 아닌 경우에는 순종돈구입에서부터 관리노력, 그리고 실제 후보

돈의 선발두수나 능력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대 체로 외국의 경우에도 종돈은 비육돈 가격의 두배내외에서 거래되므로 지금 우리나라의 종돈시세는 그리 비싸다고 할 수는 없고 지난 몇 년동안 별 변동이 없는 것 같다. 꼭 자기집에서 후보돈을 직접 조달하고자 할 경우에는 순중보다는 F₁ 모돈에 퇴교배시키는 방법, 즉 (YL)×Y 또는 (YL)×L을 권하고 싶다.

말하자면 영국식 교배방식같은 것인데 여기에서 나온 YLY나 YLL을 종비돈으로 해서 유색종(♂)을 교배시켜도 좋고 그대로 육돈으로 출하해도 나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대만의 큰 양돈장에서도 벌써부터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요즘 원유가가 떨어져서 산업구조 개편과 기업체질 강화의 기회라고 야단들인데, 우리 양돈업계도 작년이나 금년같이 사료 곡물가격이 안정되어 있을때 빨리 경쟁력을 다져야만 앞으로 고생을 덜하게 될 것 같다. 가능하면 기능별로 전문화가 되고 상호 보완적인 계열화가 이루어진다면 종돈의 질도 좋아지고 거래도 수월해질 것이다. 굳이 종돈사러 전국의 여러 농장을 돌아다니고 수입종돈의 새끼를 찾지 않아도 될 테니까 말이다.

지 난해 시끄러웠던 축협이 계열화문제도 조합원들에게 좋은 종돈을 계속 공급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한다면 방향은 쉽게 정해질 것이다.

지난 몇개월간 모처럼 호황이라고 했어도 소문만 요란했고 연말 양돈농가 호수는 251,000호('84년말 362,000호대비 30.7%감소)로 급격히 줄어든 것을 볼때 이제야말로 낭비없는 양돈을 해야할 때라고 생각해 본다.